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착공기념식에서 착공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시

## “GTX-B로 인천서 강남 ‘30분’ 교통·산업지도에 혁명적 변화”

### 尹 대통령, 18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먼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여객 1억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러한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항공기 개조 정비와 같은 전후방 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사람이 머물고 즐기는 문화관광체험공간으로 인천공항지역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개장한 인천공항복합리조트와 연계해 민간에서 추진 중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항공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두 기업 합병해 하나의 거대 항공사가 되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 가 깎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세계최대 취 글로벌 기업 유치

5000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0년간 10조 생산유발효과

4년간 인천신항에 1조 투자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

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형 항공사의 시장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비용 항공사(LCC)의 육성방침을 밝히며 “LCC의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은 LCC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 1·2부두에 1조원을 투자해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해 완전 자동화를 이루는 한편,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 소음과 공해, 먼지 없는 친환경 스마트항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인천항 배후부지 90만평(297만㎡)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월드체인 특

화구역’을 만들어 우리의 프리미엄 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상품들의 수출입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해 인천을 공항 세관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글로벌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전체 재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K-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미디어전시관과 문화행사장, 호텔, 쇼핑, 관광시설까지 해양문화관광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만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 부지 개발을 위해 ‘인천골드하버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 공동화된 인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밝히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의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인선 철도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의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끝으로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며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는 B노선은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선 공약이기도 한 GTX-D·E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했으며 지하철 5·7호선의 청라 연장,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도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천에서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국민 금융이해력 OECD ‘5위’

한은, 조사참여 39국 중 8위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총점은 평균대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 OECD 산하 경제 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으로 집계됐다. 조사참여 39개국 중 8위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5위다.

금융이해력은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금융지식 ▲건전한 금융·경제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금융행위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식구조인 금융태도를 포함한다.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실직 같은 위기때 대응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금융태도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태도의 문항은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지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 등이 반영돼 있다. 금융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의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3점으로 OECD 평균(55점)보다 낮았다. 디지털 금융지식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한 반면 디지털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작년 기업·자영업자 대출금 92조 늘어

한은, 전년비 증가폭 절반가량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1년간 9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폭이 절반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났던 지원이 줄면서 대출금 또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200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출금은 분기평균 23조

원으로, 2019년(2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 증가한 대출금이 이전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제조업 대출 잔액은 457조1000억원으로 1년간 26조4000억원(6.1%) 증가했다. 4분기만 보면 전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는데, 연말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시설투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1조2000억원(4.4%) 늘었다. 4분기는 부동산거래량이 둔화되며 부동산업의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금융·보험업의 차입이 늘며 11조9000억원 늘었다. /나유리 기자

## AI 등 4개 신기술인력 4년간 6만명 부족

» 1면 ‘첨단 과학기술’서 계속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년~2028년 4만7000명으로 5년 사이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의 향후 5년간(2023~2027년) 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27년까지 약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약화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로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기준 44억1700만달러로, 2001년 이후 만성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경쟁국들이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 기존의 국내 단독개발 중심의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나

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 하든챔피언인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뒀고, 일본은 ‘글로벌 문제 대응(SDGs)’을 목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며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국내 구축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제도 운영 ▲전략적인 기술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격차 발생원인으로 ‘R&D 인프라 부족’이 2위로 지목된 만큼, 기술·인재 등 국내외 소프트웨어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협력거점이 필수”라며 “IMEC,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이 지속가능한 순환 구조를 가진 자생적 연구 집적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